

수원 중앙도서관 18일 개관

약 7천여평의 현대식 건물...토탈 전산 시스템 구축

행사 당일 교직원·학생 차량 전면 통제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 개관 기념식'이 오는 18일 오후 4시 도서관 앞 사색의 광장에서 거행된다.

중앙도서관은 지하 2층, 지상4층으로 된 연건평 약 7천여평의 현대식 시설이며 1천9백여권의 열람석을 갖추고 첨단 전산설비를 도입하여 도서관 토탈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중앙 도서관은 온라인 네트워크 체계로 국내·외 타 대학과의 인터넷을

통한 상호 정보검색이 가능하다.

주요 시설로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되고 2백여권의 열람석을 갖춘 자료열람실, CD-Network로 CD자료 검색을 지원하는 학술잡지실, 개인열람실, 그룹스터디실, 24시간 열람실, AV(음향영상)자료실 등이 있다.

개관식 후 오후 6시30분부터는 2시간 동안 '세계평화의 해 10주년 및 제15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 SBS특별음악회

가 사색의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원캠퍼스는 행사 당일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전 교직원 및 학생차량을 정문에서 전면 통제한다. 또 행사 전날인 17일 오후 10시 이후 교내에 주차된 모든 차량에 대해서도 레카를 이용해 체과대 운동장으로 견인할 예정이다.

이에 총무과는 행사 당일 25대의 관광버스를 임대해 임시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며, 일반인차량은 공대운동장과 체과대 운동장 및 주변 장소에 주차가 가능하다.(6면 광고 참조)

〈해설〉수원캠퍼스 도서관은 지난 80년 개교와 더불어 공과대학에 약 2만여권의 장서로 개관하여, 87년에는 외국어대에 인문·사회계 도서관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오는 28일 개관식을 올리는 중앙도서관은 87년에 착공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등의 문제로 공사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자 92년 총학

생회에서는 도서관 조기관공 대책위원회를 구성, 학교와 협상을 시작했고 '도서관 조기관공'을 위한 집회도 가졌었다.

중앙도서관은 95년부터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으나 도서관 앞 정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올해까지 개관식이 미루어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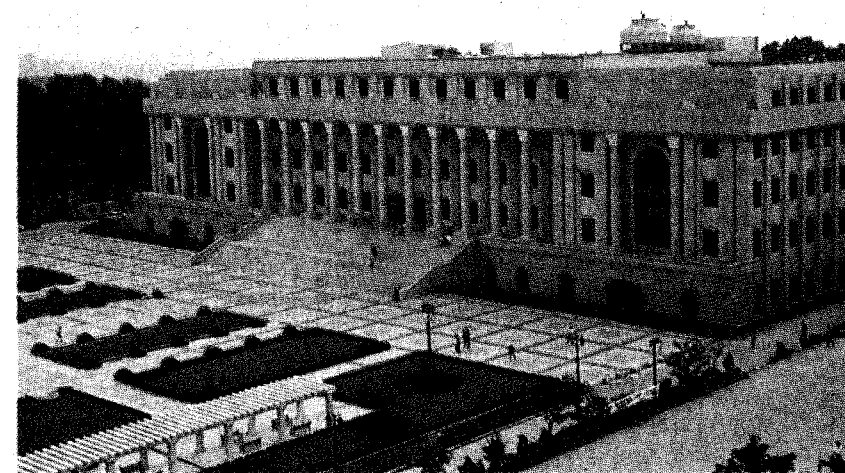
(공광섭 기자)

17일부터 국제평화회의

『세계평화의 해』 10주년 및 '제15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 및 국제평화회의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우리학교 및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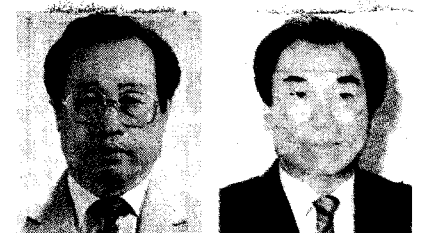
우리학교, 유엔한국협회, 세계대학총장회,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가 주최하고 서울방송, 중앙일보사가 후원하는 이번 회의는 '21세기에 있어서의 지구 공동사회를 위한 평화전략과 유엔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7개분과로 나누어 토론을 벌이며 이후 현장 및 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는 조세 버너 리드 UN 사무총장, 도널드 거스 IAUP회장, 세계저명학자 등 50여명의 외국인사와 정부인사, 종교계, 언론계, 학계 등 국내 인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개관식을 올리는 첨단 전산설비를 갖춘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

보직교수 2명 이동



〈류근림 교수〉 〈고기체 교수〉

88. 2. 한양대학원 체육학 박사
94. 1. 서울 체육대학장
고기체 교수(체육학 전공)
70. 3. 체육학과 전임강사 임용
81. 3. 수원 체과대 체육학과장

18일 전학대회

경희발전을 위한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가 오는 18일 오후 5시30분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된다.

학생들의 의견 수렴으로 학교발전을 이룩하려는 취지 아래 열리는 이번 회의는 우리 학교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스승의날을 맞아 다뤄졌으면 하는 안건 △경희학원 교육의 문제점 △우리 주위(교육여건, 복지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묻는 설문지를 배부해 접수된 안건을 토의한다.

류근림(체육대 체육)교수가 정년퇴임한 최영근교수 후임으로 체육학과대학원장에, 고기체(체육대 체육)교수가 류근림교수 후임으로 체육대학장에 각각 지난 1일부로 임명됐다.

다음은 신입 보직교수 프로필이다.

류근림 교수(체육학 전공)

65. 6 체육학과 조교수 임용

장애학생도우미제도

봉사학생 장학금지급

수원캠퍼스 장학복지과는 이번 학기부터 '지체부자유학생 도우미 제도'를 적용, 실시한다.

우리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체부자유 학생을 도울 도우미를 선발하는 이번 제도는 근로 장학의 일종으로 이번 학기에는 총 4명을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학생은 학기 중 담당한 지체부자유 학생의 거동 및 생활을 돕게 된다.

또한 지체부자유 학생 중 도움을 원하거나 일반 학생 중 도우미를 하고자 하는 학생(근로장학금 30만원 지급)은 장학복지과에 문의, 신청하면 된다.

쓰레기분리수거 실시

오는 10월부터...압축기도 구입

수원캠퍼스 인권복지위원회(인복위)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쓰레기분리수거를 실시한다.

인복위는 각단과대학과 본관, 학생회관, 도서관, 언어교육연구원 등에 총 26개의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며 캠퍼스 압축기도 구입한 상태이다.

지난 92년 처음 실시된 쓰레기분리수거로 현재 4개의 분리수거함이 체육대학, 음악대학, 문리대학, 경영대학에 설치되어 있지만 학생들의 인식부족과 제반시설미비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임동준인복위원장(사학·4)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이 많이 준비된만큼 학생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지금처럼 캠퍼스에 담배꽂이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말했다.

사 고

앞서 가고 싶은 분만 보십시오!

대학주보 45기 수습기자 모집

서울 10월 1일·수원 10월 2일 마감

진실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대학문화를 선도해가는 대학주보사가 현실과 역사를 가리며 날카로운 필봉을 드날릴 대학의 지성을 찾습니다.

▲모집인원: 서울·수원캠퍼스 〇〇명

▲모집부문: 취재편집부, 사진부, 컷(만화), 광고기획부

▲지원자격: 우리학교 1학년생(96학번)

▲특 전: 장학금 지급, 노트북 개인 지급, 해외취재·연수

▲선발일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

① 서울캠퍼스: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② 수원캠퍼스: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나. 전형일시 및 장소

① 서울캠퍼스: 10월 1일 오후5시 서울캠퍼스 편집실

② 수원캠퍼스: 10월 2일 오후5시 수원캠퍼스 편집실

다. 전형방법: 면접

▲제출서류: 응시원서(당사소정양식)

▲원서교부 및 접수처: 본사 편집실

▲문의: 961-0095(서울), 0331)280-2056(수원)

대/학/주/보/사

교시탐

시든 야채에 물뿌리기(?)

▼야채는 무엇보다도 신선해야 잘 팔린다. 금방 밭에서 딴 것 같이 푸른 빛이 돌고 촉촉한 이슬이 맺혀있는 야채야 찾는이가 많다. 어떤 상인들은 신선하지 않은 야채를 신선하게 보이려고 물을 뿌리기도 한다. 시들시들해 보이던 야채라도 촉촉히 물을 뿌려주면 금새 생기를 되찾은 듯 보인다. 품질이야 어쨌거나 겉모습이라도 그럴싸 하게 꾸며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처사이다.

▼지난 해 우리학교는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이용해 멀티미디어 환경이 구축된 수업을 제공한다든 목적하에 노트북 할인공급을 실시했다. 그러나 강의실마다 설치하던 학내 LAN전선망 연결단자는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어 노트북을 구입한 학생들은 일반컴퓨터와 별반 다르지 않게 그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할인공급으로 판매한 노트북은 주변장치의 가격이 다른 기종의 주변장치 보다 두배나 비싸고 호환조차 되지않는 등 이용자들은 여러가지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교수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용 실시하지도 않고 있다. 학내 LAN전선망 연결단자 설치에 대해 수원캠퍼스 관계자는 "각 단대에 하나의 강의실에만 연결할 계획이다"고 밝혀 학교측에선 사전에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 주먹구구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여전히 안은 채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선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휴식공간인 Cyber Park가 개설됐다. 펜티엄급 컴퓨터와 CCD카메라가 달린 화상통신용 컴퓨터 등을 마련한 이 행사에 대해 행사책임자는 "우리학교가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진정으로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선 Cyber Park라는 '물뿌리기식 사업'보다는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충분히 숙고해 추진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길이 아닌가 싶다. (김동욱 기자)

대학주보 인터넷 홈페이지 <http://news.kyunghee.ac.kr>로 변경

미등록자 최종등록 오늘까지

전대기련 공동광고

조선일보를 안보면 세상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온 국민은 KBS에서 가장 저급한 정보를 얻습니다
오늘의 왜곡 내일의 절망 MBC
YS에게 기쁨 주고 국민에게 눈총받는 SBS
왜곡을 대표하는 신문 동아일보
왜곡의 깊이가 다릅니다 중앙일보
확실히 치우치는 신문 한국일보
광고없는 1면 진실없는 전면 경향신문

정권보다 강경하고 국민보다 먼저홍분

언론은 '김일성부자의 쇄파외교 특공대', '도시게릴라' 등 열거할 수조차 없는 선동적인 언어로 학생들을 '박빙'해야 한다고 흥분했다. "그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며 목청높인 언론은 더이상 대한민국 언론이 아니다.



'왜'가 빠진 4WH 기사

'왜' 학생들은 정부의 원천봉쇄에도 통일대추전을 개회하려 했는지, '왜' 시위가 과격해졌는지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언론. 그들은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왜? 이유는 없다.



1996년 9월 6일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대학언론탄압관련 전대기련

성명서

96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연세대 통일투쟁 이후 대학신문에 대한 이례적인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대학신문들이 학교당국으로부터 제작중지 혹은 배로금지를 당하고 기사가 삭제되는 등 군사정권 하에서나 있을법한 언론탄압을 겪고있다. 또한 김영삼정권은 90여개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문사가 지 침탈, 많은 자료와 컴퓨터 하드웨어를 압수해가는 만행을 자행하기도 했다. 또한 오늘(9월 6일) 검찰은 "대학신문을 수거해 이적성여부를 검토하고 이적성이 발견된 대학신문의 편집장을 비롯한 지도학생을 사법처리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이를 경찰에 지시했다. 대학신문과 교직원집행들이 기사게제로 구속되던 80년대의 반민주적 악행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법정학원 통일대추전' 행사와 관련한 제도언론의 보도는 왜곡과 보도로 일관했다. 행사의 취지나 내용, 대외가 목적을 동반하게 된 원인은 일관하고 학생들을 '북의 행동대원' '주사파의 난동' '도시게릴라' 등으로 몰아부치기에 바빴다. (중략)

이처럼 최소한의 사실보도조차 하지 못했던 제도언론과 달리 진실한 보도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바로 대학신문을 비롯한 대학언론이었다. 제도언론 비평, 여학생 성추행 사건, 심지어 이 사대과 관련한 기사한줄 나올 수 없었던 대학신문도 있다. 마찰이 있었으나 주관교수와 협상을 통해 해결된 대학을 제외하고 신문발행이 중단되거나 지면된 학교만도 30여개에 이른다.

대학신문마저 정권의 손에 돌아갈 수는 없다. 정권을 지키려는 선배 언론인물들의 무수한 노력끝에 제한적이지만 언언 자유의 시계바늘을 또다시 군사정권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독자들의 기본적인 알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국 124개 대학의 대학신문사(학보사) 기자들은 이를 좌시하지않을. 않을 것이면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정부와 학교측은 즉각 대학신문에 대해 자행하고 있는 언론탄압을 중단하라!!